

〈제 65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과학기술진흥원

### ◆ 제6대 신임 윤석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취임



광주 과학기술 진흥 및 R&D 전담지원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제6대 윤석구 신임 원장이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윤석구 원장은 광주은행 종합기획부장을 비롯해 우리금융자산관리(주) 경영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위원장,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배운 경영 혁신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형 뉴딜에 맞춰 지역 R&D 정책과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R&D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R&D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광주은행

### ◆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희망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동참



광주은행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새병원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의 ‘새병원 희망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달 24일, 전남대학교병원 개원 111주년 기념식에서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의 릴레이 캠페인의 출발 선언에 이어 첫 번째 주자로 박홍석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장이 바톤을 이어받았으며, 박홍석 회장의

지목으로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이번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

전남대학교병원의 ‘새병원 희망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은 최첨단 환자맞춤형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새병원의 역할과 기능, 책임 등 다양한 희망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새병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 양동·복개시장 상인회에 손소독제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소독제 2,400개를 광주 양동시장 상인회와 복개상가 상인회에 지원했다.

## 오비맥주 광주공장

### ◆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 전개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이달 21일까지 실시된다. 챌린지는 개인과 기관, 협회, 브랜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쌀로 만든 음식의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동참할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또한 오비맥주는 챌린지가 종료된 후 참여 게시물의 수만큼 쌀 베이커리 스타트업 '달롤컴퍼니'의 우리 쌀 케이크를 구매해, 아이들을 위한 행복안전망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 ◆ 제8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일제점검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지난달 27일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사업장 일제점검(패트롤-Day)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단 점검인력으로 구성된 22개조(44명)의 점검반이 소규모 건설현장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60여개소를 방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3대 안전조치(①추락,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및

③보호구 지급·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및 시정을 요구했다. 광주광역본부는 우리지역 사고사망 발생 흐름을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12월까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한국폴리텍 V 대학

### ◆ 실무자 ‘청렴 네트워크’ 서약식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학장 도재윤)는 지난달 29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구매계약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무용품 도매업체 (주)모던솔루션, PC 유지보수 업체 (주)엠텍정보와 ‘실무자 청렴 네트워크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서약식은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해온 외부 업체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실무자들간의 청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최된 서약식으로 △공정 ·

청렴한 직무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외부 부당한섭 배제 △내부 고발자 불이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 해양에너지

### ◆ 한국화학공학회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해양에너지 김형순 사장이 회장으로 재임중인 한국 화학공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8일 개최된 개회식에는 본회 김봉길 회장, 이용섭 광주 광역시장,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 등 유수한 지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형순 회장은 “With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기술의 발전, 첨단소재 및 공정의 개발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화학공학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화학공학회가 뉴노멀 시대의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변환을 ‘With 코로나’를 통해 선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문과 산업의 융합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화학공학이라는 가치 창조와 내년도 60주년을 향한 한국화학공학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한국화학공학회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II. 광주경충 소식

### 〈윤영현 부회장,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광주노사민정협의회에 본회 윤영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으로 GGM 경영진 연임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그동안 경영진이 GGM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캐스퍼 양산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GGM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과 현대자동차 및 기타 주주들의 현 경영진 재신임 의견 등을 감안한 제안으로 캐스퍼의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경영진을 교체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이날 참여한 노동계 위원들은 현 GGM 경영진에 대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노동 단체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적극적인 노사상생을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고생으로 최첨단 공장 설립과 캐스퍼 출시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박광태 대표이사가 연임의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표와 최종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제3차 경영·노동교육〉



본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3차 경영·노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노무·총무 담당자 및 부서장 42명이 참가했으며, 근로기준법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전문가의 내용 설명과 명료한 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보다 쉽게 숙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사무국 일지(10.25 ~ 10.29)

10.27 (수)	●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 간담회	10.29 (금)	● 제제1535회 금요조찬포럼 ● 광주노사민정협의회 2차 회의
10.28 (목)	● 서구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의 ● 제3차 경영·노동교육		



### 〈제1535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박영렬(한국경영학회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주제: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신 경영전략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0월2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강연장에서 박영렬 한국경영학회장을 초청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신 경영전략>이란 주제로 제153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세계경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다. 따라서 2030년 ‘글로벌 아시아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로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되면서 한국 대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했으나, 2013년부터 ‘글로벌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선진 거대 다국적기업의 귀환이 시작됐고,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시장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전자로 등장했다.

또한 2018년부터 글로벌 G2시대가 시작되면서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자국우선주의가 슈퍼보호무역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글로벌 커뮤니티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2023년 시작되는 ‘글로벌 재편시대’에 인도가 급부상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킬 것이며, 결국 2028년부터 ‘글로벌 아시아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은 높지만 2030년 글로벌 아시아시대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도전자들이 추격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성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전면에서 나서 미래 아시아를 위한 교두보를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다.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기업가정신 창출을 위한 소통과 협력, 연결의 준비를 잘 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아시아 시대는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며 세계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광주가 중국과 일본, 인도, 아세안으로 나갈 수 있는 허브의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시아는 파스함을 원하고 있다. 어려운 나라와 함께하고 아픈 곳을 치유해줄 수 있는 선도적 국가가 될 때 한국은 존경받는 리더의 국가가 될 것이다.





## 1. 노사 동향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7차 전원회의 개최(10. 26)

- 금번 회의에서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
- 경영계는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 축소 조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
  - 경영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서 상급단체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산업현장에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노동계는 교대제 근무, 연합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와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폐지 및 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장 판단 기준 수정 등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대폭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
- 한편, 근면위에서 실태조사 설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주부터 현장 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FGI 진행 예정

#### ■ 민주노총, 10. 20 불법집회에 이어 11월에도 집회 개최 예고

- 민주노총이 10. 20 총파업 및 불법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불법 집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10. 21)
  - ※ 민주노총은 10. 20 서대문 사거리에서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불법시위 및 전국단위 총파업을 진행
  - ※ 경총은 10. 18 민주노총이 ①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 경제회복 노력에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함께 할 것, ②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게 감염병 예방에 동참할 것, ③ 정부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촉구

○ 민주노총은 경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10. 21 ‘민주노총 총파업 보고 및 입장,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

- 민주노총은 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전국노동자대회와 2022. 1 민중총궐기를 통해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노조법 개정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입장

#### [참고] 민주노총 향후 투쟁 계획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11. 4	▲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11. 13	▲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집결
11월 中	▲ 공무원법제화 및 공공부분 차별해소 예산 쟁취 대응 투쟁
11. 28	▲ 청년노동자 행진대회
2022. 1	▲ 민중총궐기투쟁
지속	▲ 국회앞 천막농성 등 국회대응 투쟁 ▲ 5인 미만 차별철폐 서명운동



## 2. 법제 동향

### ■ 윤준병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2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로 구제명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강제금을 부과하도록만 되어 있어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사각지대 발생
- (주요 내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

### ■ 윤준병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2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토록 규정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 윤준병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2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큼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 의결 결과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
  -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 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강화

#### ■ 최혜영 의원(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25)

- (발의 이유) 현행법이 고용정책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고용 촉진의 지원 관련 규정에 장애 또는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고용 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장애 여부·장애 등급을 추가하고,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도 장애인을 추가

#### ■ 박대수 의원(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25)

- (발의 이유)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교육비·영업이익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또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도 전체 사업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범위를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착취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부재
- (주요 내용)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 관리비용 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정